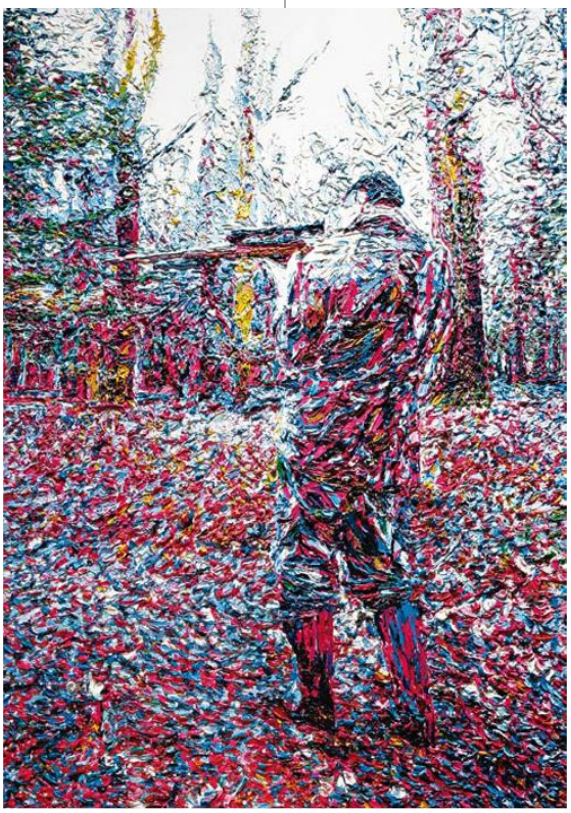
미래는 오래 지속된다: 유럽현대회화U

EXHIBITION

2012 / 11 / 20

ART IN CULTURE



에릭 슈미트(Erik Schmidt) <Allmorgendliche Männlichkeit/ Recurrent Morning> 캔버스에 유채 210×150cm 2009

독일과 스위스의 회화작가로 구성되어있지만, 이들은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해외갤러리의 소속작가로 활동 중이다. 또한 이번 전시에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집하며 컬렉션을 구성하는 세계적인 컬렉터 돈 루벨, 메라 루벨 부부가 수집한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.

참여작가
수잔 쿤(Susanne Kühn), 우베코브스키(Uwe Kowski), 슐라보미르 엘스너(Slawomir Elsner), 크리스티안 헬믹(-Christian Hellmich), 틸로 바움가르텔(Tilo Baumgärtel), 페터 부쉬(Peter Busch), 페터 보니쉬(Peter Bönisch), 에릭 슈미트(Erik Schmidt), 카로 니더러(Caro Niederer)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-17
www.interalia.co.kr

02)3479-0163
글 | 유소양 인턴기자